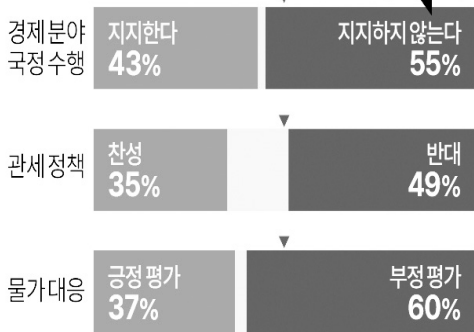


미국 트럼프 대통령
경제 정책 지지율

4월 9~13일 미국 성인 1,000명 대상 조사
(오차범위 ±31%p)



연남뉴스
자료: CNBC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20250421

‘트럼프 경제정책’ 지지층도 등 돌렸다

美 CNBC 여론조사…블루칼라 지지층도 ‘부정’ 증가 관세정책이 결정적 원인…49% “미국 경제 나빠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 지지율이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현지시간) 나왔다.
미 CNBC 방송이 지난 9~13일 미국인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해 이날 공개한 결과(오차범위 ±3.1%포인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분야 국정 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3%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55%에 못 미쳤다.
CNBC 여론조사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경

제 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를 못 미친 것은 지난 1월 취임 이후는 물론 그의 재임 1기 기간을 통틀어 이번 조사가 처음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만큼은 잘 살릴 것이라고 기대했던 지난 대선 이후 미국인들의 경제 낙관론이 사라진 것이라고 CNBC는 설명했다.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4%가 지지한다고 답했고, 51%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경제 분야의 지지율 하락의 주된 배경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물가 대응 관련 불만에서 나왔다.
응답자의 49%가 전면적인 관세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한다는 답변은 35%에 그쳤다.
인플레이션 및 생활비 분야와 관련해서도 부정 평가가 60%였으며, 긍정 평가는 37%에 그쳤다.
내년 미국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 비중은 49%로 2023년 조사 이후 가장 높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블루칼라 노동 계층의 경우 경제 운영에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트럼프 1기 기간 평균과 비교해보면 부정적인 응답 비중이 이번 조사에서 14%포인트 높아졌다고 CNBC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에서도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번 설문과 관련한 공화당 여론조사기관인 퍼블릭 오피니언 스트라티지스의 마이카 로버츠 매니징 파트너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라고 평가했다.
설문에 참여한 민주당 여론조사기관인 하트 어소시에이츠의 제이 캠벨 파트너는 “유권자들은 트럼프가 경제를 개선할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뽑았는데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현재 벌어지는 일들을 좋아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러 일방 ‘30시간 휴전’ 설전만 하다 끝나

협상교착 타개 대신 휴전 위반 공방 러시아 종전·미국 중재 의지 의문 美와 광물협정 앞둔 우크라 좌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30시간 부활절 휴전’이 21일(현지시간) 종료됐다.
그러나 양측 모두 상대방이 휴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데에만 열을 올렸을 뿐, 휴전 연장 등 종전협상의 교착 해소를 위한 물꼬를 트기엔 애초에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타스 통신,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설정한 부활절 휴전의 시한은 모스크바 현지 시각으로 이날 0시(한국시간 오전 6시) 도과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다른 명령은 없었다”며 휴전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의 휴전 선언 이후 우크라이나가 부활절 이후로 휴전을 연장하자고 역제안했고 미국 국무부 역시 연장되는 것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무위에 그친 것이다.
30시간의 짧은 휴전조차 지켜졌는지 의문이 남는다. 양측이 서로 휴전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열띤 비난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진지를 44차례 공격하고 크림반도, 브란스크, 쿠르스크, 벨고로드 등 접경 지역에서 드론 공격을 900회 이상 벌이는 등 1000번 넘게 휴전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그 결과 민간인 사상자와 민간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휴전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러시아가 더 많은 위반을 저질렀다고 반박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일 오전부터 러시아의 포격이 오히려 늘어났고 자국 진지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은 67차례 이뤄졌다



푸틴

트럼프

젤렌스키

며 오후 8시 기준으로 2천회 넘는 러시아의 휴전 위반이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군은 21일 오전 러시아의 휴전 약속 위반이 3000회에 육박했다고 집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는 푸틴 대통령이 군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진정한 종전 의지 없이 그저 유리한 선전에만 관심이 있다는 뜻”이라고 비교했다.
우크라이나군 제93기계화여단의 병사 세르히(22)는 로이터에 “휴전 선언은 마치 양보와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바깥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전장의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늘 그랬듯이 노골적 거짓말일 뿐”이라고 냉소했다.
일방적으로 선언한 고작 30시간의 휴전조차 논란만 거듭된 채 종료됐다는 점에서 푸틴 대통령이 종전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재 중단’까지 거론하며 불만을 드러내자 이를 적당히 달래 가며 종전 협상의 우위를 잡기 위해 보여주거시 휴전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미국 역시 중재자로서 외교력 부재 속에 상황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부활절 휴전을 선언한 직후에도 그 일방적 성격에 대한 지적은 내놓지 않았고, 이후에도 실질적 노력 없이 휴전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만 주문처럼 외다가 그나마 찾아온 협상 교착 타개의 기회도 놓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전쟁 종식보다는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을 통한 자국 이익 극대화에만 관심을 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키우는 대목이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오는 24일 미국에 광물 접근권을 부여하는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영유권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가디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의 ‘친 푸틴’ 발언에 대해 점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군사 지원을 사실상 중단하고 정보 공유를 멈추는 등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러시아에 대해서는 비례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1일 일본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봉납한 공물이 놓여 있다. 야스쿠니신사에서 이날부터 23일까지 춘계 예대제가 진행된다. /연합뉴스

日 이시바 총리, 야스쿠니신사에 공물 봉납 23일까지 예대제…한·중 반발 고려 참배는 안할 듯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1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시작된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이시바 시게루’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가을에 열린 야스쿠니신사 추계 예대제 때도 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공물을 봉납했다.
이시바 총리는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예대제 기간에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중국과 한국의 반발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료의 대응이 조심”이라고 전했다.

일본 현직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은 2013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마지막이었다.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고 있다.
그중 90%에 가까운 약 213만3000 위는 태평양전쟁과 연관돼 있다.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 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도 합사돼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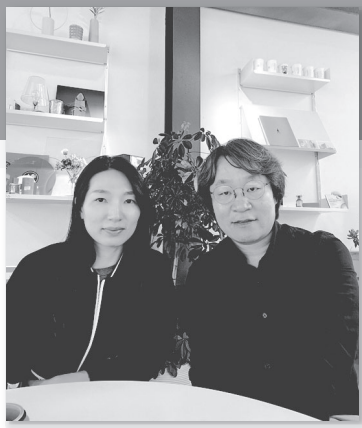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